우리의 비전 : 이든벨리 원주민 마을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날이 오리라 !!

우리의 사명 :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

아직 끝나지 않은 북미 원주민 선교편지 (주간 선교일기) 김문영, 이순양 선교사

1. 이든밸리 원주민 교회 사역. 2. 문서선교 (매달 한인신문에 칼럼 기고)

(2022년 3월 20일)
지난주일, '폴린'이 오른쪽 눈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채로 교회에 오더니,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경찰과 구급차까지 부르며 한동안 소동을 벌였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일찍 교회에 왔다. 이번에는 가족과 헤어지겠다고 한다. 이들을 위로하는 것만이 내 일이 아니다, 어떻게든 이끌고 가야 한다. "폴린, 이제는 이든밸리에 복음을 따르며 주를 경배하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는데 당신은 여전히 뒤에 처져 있다. 우리에게는 구원과 멸망 둘 중의 하나뿐! 중간지대는 없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면 나도 도와줄 수 없다.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무시한다면 당신의 결정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품 밖에 있게 된다. 모세는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앞에 있으니 생명을 선택하라고 했다". 설교 중에 예고 없이 불쑥 폴린에게 질문했다 "당신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난 하나님께 속했어요"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눈이 빨개진다. 주여 폴린과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2022년 3월 27일)
예배시간 전에 진기한 모습을 보았다. 교회의 깨진 유리 창문 틈으로 무언가가 머리를 디밀면서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작년 겨울에 찬 바람을 막으려고 작은 나무판자를 끼워 놓았었는데, 어느 날 그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유리창 틈새로 머리를 집어넣고 다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그곳만 통과하면 위험한 천적이 없는 예배당 천장에서 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그 모습에 아련한 감동을 받는다. 반쯤 들어오다가 우리와 눈이 마주치자 후퇴! 날아가 버렸다. 어쩐지,,가

끔 예배당 안에 새똥이 있는 것을 보며 의아스럽게 생각했었지만, 생존 본능에 의한 분투의 흔적이었던 것을 오늘 알았다. 살길을 찾아 노력하는 것은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마을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 우리는 이 참새만큼이나 절절할까?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더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2022년 4월 3일)
미국 남침례교 소속 14명의 주의 일꾼들이 캐나다에 선교 방문차 왔다. 주관자인 조니는 내게 원주민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를 요청했다. 몇일동안 난 주님 앞에서 백지 노트가 되어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그들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단 한마디의 실수라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마음을 종이에 적었다. 그들 앞에서 이 내용이 내 마음의 모든 것임을 확신하며 전달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원주민들의 영적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울컥하기 시작한 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했지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이 말을 이어가지 못하게 했다. 인터뷰를 인도하는 조니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추호의 흔들림 없었던 전도자들의 모습이 가슴 메이도록 그립다.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새벽에 주님께 다시 두 손을 모았다 “주여, 이 종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 주소서. 값싼 감성이 아닌 거룩한 사역 완수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하소서.”

(2022년 4월 10일, 1)
교회 파괴자가 또 다녀갔다. 이번엔 아예 지하실 문을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부셔났다. 교회 지하실에서 폭죽놀이를 한 흔적이 있다. 화재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 같다,, 이 거룩한 주일에 또다시 난장판된 성전을 맞이했다. 7년이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인내하고 이들에게 다가오는 우리 발걸음이,, 희망? 글쎄!, “이제 그만할까?” 복음 전해야 할 곳이 아직도 세상에 많고 많은데, 내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까 봐 정말 두렵다, 아프리카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때가 너무나 그립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교육을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북미 원주민 사역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확신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곳에 왔는데,, 우리의 착각이었나?.
4월 중순이 다가오는 오늘, 눈보라가 산밑의 이 마을을 덮치고 있다, 그 흩뿌려지는 눈발을 종이 삼아 소망이 보이지 않는 허탈감을 적어 날려본다, 주님, 우리가 계속 이곳을 위해 헌신하기 원하시나요?

(2022년 4월 10일, 2)
아내가 무심코 혼잣말을 한다. “휴- 집안일은 하고 또 해도 표시도 안나”, 그 말이 사실이다. 집안을 꼼꼼하게 쓸고 닦고 정돈하는 것은 오늘을 유지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평범할지라도 그 노력을 포기한 곳은 머지않아 폐가나 흉가로 변해 버린다. 1969년 7월, '아폴로'가 달에 착륙하여 전 세계가 환호할 때, ‘브르치고’라는 젊은 선교사는 아무도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중미의 정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 감당을 위해 고독함을 감내해야 했다. 바울은 로마에서 투옥되어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났고 세상의 번잡함 속에서 그의 인기와 명성은 잊혀 갔었다. 사단은 그를 절망적인 환경으로 몰고 갔지만, 오히려 그 기간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는 모든 사역자의 영혼을 깨우는 지침서가 되고 있다. 주여, 비록 지금은 이든밸리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단순하고 지속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의 때에 예배공동체가 꼭 세워지게 하소서

(2022년 4월 17일)
에스겔은 30살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26세 즈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그의 희망은 막막해지고 있었다. 거기에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곳에서 70년을 머물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편지를 받고 평생 그의 꿈이 실현되지 못할 처지가 되어 낙담할 수도 있었으며, 2년 안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짓 선지자의 헛된 격려는 마음의 짐만 가중되었을 수도 있었다.
드디어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시작할 수 있는 30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아닌 포로로 잡혀 와있는 곳,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의 일을 맡기셨다. 불안해하는 동족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야 했다. 본인의 꿈이 닫히는 것은 자신의 시선일 뿐, 하나님의 청사진에서는 고귀한 임무 변경일 뿐이다!. “주님,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며 예수팀의 멤버로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2022년 4월 24일)
우리는 오래전부터 경쟁조직에서 살고 있다. 그 속에서는 가끔 성취감은 맛볼지언정 행복을 말하기는 어려웠다. 개인주의와 능력위주 사회에서는 그 현상이 갈수록 심해진다. 상대를 향해 웃는 것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냉정함이 삶을 더 지치고 차갑게 한다. 성공을 향해 전력 질주하느라 남들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 풍파를 타임머신에 태워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슴을 채운다. 어제 16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든밸리를 방문했다, 달콤한 주말 휴식을 반납하고 교회 마당을 정리하고 예배당을 쓸고 닦고, 지하실의 부서진 파편을 치웠다. 형제 자매 친척도 아닌 이들이,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이든밸리를 품으며 하루를 헌신했다, 주님 그분들의 삶과 교회를 축복하소서!

(2022년 5월 1일)
팬데믹으로 수년 동안 성찬식을 진행할 수 없었는데, 인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그 성찬식을 오늘 드렸다.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빵을 자르면서 긴장되었고 포도 주스를 준비하면서 새로웠다. 이것이 형식상의 행동이라면 난 이미 망한 자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 같이 몹쓸 죄인을 살리신 감사와 경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야 한다. 이든밸리 마을에 눈 대신 비가 죽죽 내렸다, 실내외의 온도 차이 때문에 목조건물인 예배당이 이곳 저것에서 삐그떡,,딱딱,,소리를 낸다. 산등성이부터 마을까지 잔뜩 흐린 날씨는 이든밸리의 영적 상황을 반영하는 듯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마을 백구는 변함없이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다가왔다, 내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만 반가워해도 난 이미 성인이 되었을 것 같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여! 너무 부족한 우리 영성을 거룩하게 승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에 우리의 최고 희망을 갖게 하소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주님의 빛을 이곳에 비춰주소서!

(2022년 5월 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적 추수의 일터에 있는 자들에게 포기란 눈부시게 사치스러운 언어일 뿐이다.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었다. 자국의 멸망을 직감한 그가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 했던 도발이었다, 그곳의 원래 권세자이신 예수님이 아담에게 위임했더니만 사단에게 넘겨버렸으니, 주님의 대리 통치자인 아담의 형편없음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마치 전리품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원래의 주인에게 펼쳐 보였다. 사단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사역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이것 줄 테니 네가 하고 있는 일 빨리 포기하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다. 포기의 아픔은 바울을 분노케 했던 ‘마가’로 충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사단의 포화가 빗발치듯 쏟아지는 곳에서 예수님이 방패가 되시기에 피곤하고 맘에 차지 않는다고 갈 길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일부러 거죽 대기를 걸쳐 입고 귀와 눈을 막았었나 보다.

(2022년 5월 15일)
메일 박스를 열어보니 맥도날드에서 할인 쿠폰이 배달되어왔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내에게 “내일 ‘맥’에 가서 아침 먹을까?” 했더니 “오케이!” 한다. 내 주먹 사이즈의 샌드위치와 커피 한잔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식할 수 있는 기회다. 오랜만에 신선한 기분으로 넓은 맥도날드 매장에서 아침 햇살 비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상큼한 하루를 시작했다. 내 옆에서 남자 노인들 세분이 식사를 마친 뒤 일어날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다. 의도적이지 않게 그들의 이야기가 들렸는데 시간을 흘려 보내기 위한 주제들이었다. “나도 은퇴하면 남은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며 살게 될까?”. 몇일전 신문에 “나이 60까지는 인생의 워밍업이다!”라는 칼럼을 읽었는데 이는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다. 나도 내 인생 여정의 준비 운동을 마친 것뿐이다. 주저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다. 우리의 부족함을 평생 인내해 주신 주님, 이제,,,당신의 일꾼으로 쓰소서!

(2022년 5월 22일)
“왜 이런 말을 하지?” 할 정도로 많은 원주민이 자신들은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기독교인 흉내를 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무당집으로, 목사를 마을의 주술사 종류로 인식하여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안정을 찾으면 곧바로 교회를 등한시한다. 마치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 영적 보험을 들어 놓는 식이다, 저주를 막고 ‘복’만 달라며 ‘신’들을 이용하고 있는 우상숭배자들의 전형적인 모

습이다. 이든밸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끝없어 보이는 길 위에서 지쳐간다. 지금 우리가 기대 할 수 있는 일은 숨가쁜 영적 싸움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 외에 없다. 요즘에 많이 피곤해지고 있는 우리 부부가 이번 주간도 포기하지 않도록, 또한 새로운 전진을 위해 휴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 29일)
지난주 수요일, 벧엘교회 청년헌신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음날 유튜브에 올려진 설교하는 내 모습을 보았다. 그동안 강의도 했었고 매 주일 설교하고 있지만 내 설교를 내가 직접 들어보기는 처음이었다. 청년들에게 성경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했다. 그런데 설교하는 내 모습을 본 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지탄받아야 할 문장들,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책망받을 정도로 깔끔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성서 지명,,민망함을 넘어 자책감이 몰려왔다. 막상 설교할 때는 감지하지 못했던 실수들이다. 매달 한 번씩 신문에 기고하는 칼럼은 수십 번 교정을 하면서 사소한 부분도 점검하지만 말은 한번 뱉으면 교정이 불가하다. 그렇다고 열정이 말실수를 멋지게 포장할 수 없다. 부정확한 메시지는 영혼을 깨울 수도 살릴 수도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했을 내게 돌을 던진다. 주님! 이 종놈이 주의 마음과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2022년 6월 5일)
교회를 사방에서 둘러쌓고 있는 민들레는 이든밸리 예배당을 노란 꽃밭 속의 궁궐로 만들어 놓았다. 마을의 학교 마당도, 먼지 흩날리는 도로에도, 입구의 작은 강가 주변에도, 작년처럼 모두 노란색으로 다시 장식하며 중단없는 생명을 증명하고 있다. 그 민들레가 집 마당에서는 몹쓸 잡초로 취급받는다, 강한 생명력이 잔디의 자리를 침범하기 때문이다. 겨울의 눈과 얼음이 녹아버릴 즈음이면 봄의 전령사인 그 노란 꽃을 처치하기 위해 집마다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다. 이든밸리 입구에 들어오면서 마을 전체를 뒤덮은 민들레를 잡초 혹은 예쁜 꽃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내 몫이다.
오늘도 매월 첫 주에 행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경건해진다. 비록 빵조각과 포도 주스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예수께서 완성하신 새 계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피요 살이다,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라”. 주님! 이든밸리가 거듭나서 남을 해롭게 하는 잡초가 아닌 생명을 증거하는 예쁜 꽃이 되게 하소서!

(2022년 6월 12일)
언제부터인지 교우들이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예배 중에 간단한 질문을 하는 습관이 생겼다. 대부분 멋쩍게 우물쭈물하지만, 가뭄에 콩 나듯이 참석하고 있는 ‘샘’은 신기할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성실하게 대답한다. 코로나 팬대믹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다. 그러나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썰물처럼 모두 빠져나간 뒤, 아직도 예배 출석률이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왔든 말든, 폭풍우와 눈보라가 치든 말든, 심지어 몸이 아파도 매 주일,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작은 그룹의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 그들의 단순한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용기를 주시는 통로가 된다. 잊혀졌던 원주민들이 불신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당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주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있다. 주님,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작은 노력이 하늘나라에서 진주처럼 빛나게 하소서!!

(2022년 6월 19일)
5월 어느날, 예배실 앞마당에 깨어진 병 조각을 주워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교회로 접근했다. “이 마을에 웬 차?”. 차에서 내린 젊은이들은 이웃 마을 터너밸리에 있는 ‘예수전도단’팀이었다. 나도 남아공에서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은 멤버였기에 마냥 반가웠다. 초면이었지만 가족 같았고 늦둥이 아들뻘이었지만 친구 같았다. 네팔 출신인 그의 젊은 아내는 얼마나 붙임성이 좋은지 예배 시작하기 전 아내에게 찰싹 붙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모습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종을 초월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서로의 다른 문화가 장벽이 되지 않는다. 이든밸리 교우들과 이제야 겨우 친구 테두리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길 때까지 그리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매일 지속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것 같다. 그 먼 길,,,옆으로 빠지지 않기를 조용히 주님께 두 손을 모아본다.

(2022년 6월 26일)
예배가 시작된 후에 웬 남자가 들어오더니 맨 뒷자리에 앉았다. 이든밸리 교회의 교우는 아닌데,,마을 사람이 지나가다가 무심코 들어온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손을 들고 질문도 하고 예배 후에 내게로 와서 인사를 하길래 가만히 그 얼굴을 살펴보니 그동안 몰라보게 삭아버린(?) 바바라의 막내 아들 '이얀'이었다. 약 4년 전에 예배를 한 번 참석한 뒤 "자꾸 와보라고 해서 왔는데, 이젠 됐쥬?"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쩐 일로 오늘은 나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자랑한다. 난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서 부터 당신의 신앙을 시작하라고 단호하게 타일렀다. 순간,,주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음주 여름성경학교 기간에 교회와서 나와 일대일 성경 공부하자"고 제안했더니 그러겠다고 한다. 이분들에게 '약속'이란 주고받는 대화일 뿐 지켜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또다시 한 사람 구원의 희망을 품고 '이얀'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3일)
캘거리의 몇몇 한인교회들이 원주민 마을의 여름성경학교와 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는 내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이든밸리에서 봉사할 선교팀에게 1시간 강의했다. 단기 선교 지원자 중에 절반은 아기(?)들로 여겼던 청소년들이다. 만만치 않은 원주민 마을에서 승리가 있기를,,그러나 그들을 토닥거리고 있기에는 생생하도록 잔인한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들이 마을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신선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 오늘은 또 다른 한인교회에서 다른 선교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의 정신'을 전했다. 요즘 내 목에 문제가 생겨서 발성을 조심해야 했지만 선교 동역자들을 만나자마자 목청 주의보가 해제됐다. 든든하다!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 누가 뭐래도 교회가 있는 한, 세상은 어둡지 않다, 아니 어두워질 수 없다!. 예수의 빛을 전하는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인생 여행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충성하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2022년 7월 10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든밸리 어린이를 위해 헌신한 캘거리 벧엘교회의 단기선교 팀은, 오랜 가뭄으로 말라버린 논바닥을 바라보며 기진맥진해 있는 농부를 위해 살수차를 끌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구조대원들의 모습이었다. 이들의 사역기간은 짧았지만 아이들에게 나눈 그 복음의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 사단은 코로나의 재난을 악용해서 원주민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했고 아이들은 아무렇게나 방치되었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 부부는 힘든 싸움을 이어갔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오후에는 마을 심방을 나서는 봉사자들의 행적은 빛을 비추는 천국인의 행진이었다. 우린 찬양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팀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을 파송하고 중보 기도로 지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팀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심껏 축복드린다. 이든밸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도해 주겠습니까?

2022년 7월 12일

북미 원주민 사역자 김문영, 이순양 선교사 드립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교사 부부가 되게 하소서.
2. 이든밸리 교회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으소서.
3. 우리 부부와 아들가정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 사고, 재난 그리고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 부터 지켜주소서